

**2016학년도 부산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인문·사회계) 문제지**

지원학과(학부)		수험번호	성명
----------	--	------	----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연필 또는 샤프로 작성하시오.
3. 답안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시오.
4.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5.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답안에 드러내지 마시오.
6.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7.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문항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소수자라고 해서 반드시 그 수가 적은 사람들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수자는 수적으로 소수일 수 있지만 동시에 다수일 수도 있다. 다수자 역시 수적으로 소수일 수 있고 다수일 수도 있다. 소수자는 오히려 한정되지 않는 절대다수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좀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소수자란 표준화된 인간상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소수자는 표준화된 인간상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규정된다. 이성에 입각하여 설정된 표준적인 근대 인간상은 바로 백인-남성-어른-이성애자-표준어를 쓰는 사람 등으로 표상된다. 이러한 인간상은 표준화된 모형을 준거로 하여 주변으로 통하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려 한다. 그럼으로써 유색인-여성-어린이-동성애자-사투리를 쓰는 사람 등을 배제하고 억압하는 권력과 연결된다. 소수자가 인식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주위를 바꾸어 나가려는 미시 정치적 힘겨움에 나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다수자라고 해서 소수자에 비해 더 훌륭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다수자는 사람들이 지닌 다양한 특성들 가운데 어떤 하나 또는 여러 특성을 대표하는 상태나 표준을 나타낼 뿐이다. 다양한 유색인 가운데 백인만을 골라 중심으로 고정하는 것이 그 한 예일 것이다. 다수자는 어떤 표준을 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 다수자는 자신이 설정한 표준에서 벗어나거나 벗어나려는 경향을 지닌 사람들에게 그 표준을 절대적으로 따를 것을 강요한다. 다수자는 그 표준을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지만, 그 표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배제해 나간다. 결국 다수자의 상은 권력자의 상이며 국가나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나) 19세기 조선에서 22년을 살다 순교한 앙투안 다블뤼(Antoine Daveluy, 1818~1866) 주교는 「어릿골 서한」이라는 글에서 조선과 조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인은 반(半)야만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매우 까다로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나라에는 교육이라고는 전혀 없다. 심지어 우리의 교우들이 살아가는 마을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조선인들은 화가 나면 매우 공격적으로 돌변한다. 여자들도 뻔뻔스러우며 말이 아주 모질다. 조선인들은 대단한 수다쟁이들로서 대화를 할 때에는 마치 아이들처럼 말한다. 나는 조선인들이 농담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조선인들의 성격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도록 하겠다. 그들은 지독한 거짓말쟁이들인데 그다지 악의는 없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해도 조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 조선인들이 문명에 도달하기를 기대하기란 아직 어렵다.

(뒷면에 계속)

(다) 『거대한 바다(The Big Sea)』(1940)에서 아프리카계 미국 소설가인 랭스턴 휴즈(Langston Hughes)는 배를 타고 뉴욕을 떠나 아프리카로 향해 가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갑판 위에 올라가서 이번 항해를 떠나면서 가져온 모든 ㉠책들을 할 수 있는 한 저 먼 바다 속으로 던져 버린다. 책들이 선회하다 한 권씩 바다 속으로 떨어질 때, 그는 자유의 희열을 느낀다. 그는 “그 책들을 바다 속으로 던져 버릴 때 내 마음에서 백만 장의 벽돌들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다”고 말한다. 휴즈는 조상들이 살았던 아프리카로 가는 도중에 자신이 지금까지 알았고 배웠던 모든 것을 뒤에 남겨 두고자 한다. 자신과 같은 종족들이 살고 있는 대륙으로 귀환하는 과정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사회의 최하층에 묶어 두었던 서열문화의 모든 유산은 포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의 아프리카, 흑인들의 모국이여! 나는 흑인이다! 아프리카다! 단지 책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만지고 볼 수 있는 현실적 실체다!”

(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노예의 후손과 노예 주인의 후손이 형제애를 가지고 식탁 앞에 함께 앉을 수 있으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아이들이 그들의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에 의해 평가 받고 존중 받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절망의 산을 깎아 희망의 바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소란스러운 불협화음을 아름다운 형제애가 담긴 교향곡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1-1. 제시문 (가)의 내용을 활용하여 제시문 (나), (다), (라)에서 다수자의 표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250자±20자) [15점]

1-2. 제시문 (가)의 ‘소수자’ 개념을 통해서 ㉠과 ㉡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250자±20자) [15점]

【문항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는 역사가란 자신의 편견에서 온전히 벗어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하며, 과거의 사건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대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어난 사실’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스러운 영역이므로 역사가는 자기 자신의 편견이나 생각을 버리고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A는 역사가가 자기 자신을 역사서술에서 소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는 역사적 사실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 역사가의 사유 안에 있는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역사적 사실은 역사가에 의해 주관적으로 해석된 서술이고, 그 사건을 표현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현재의 감상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B는 “모든 사람이 각각 자신의 역사가”라고 주장했다. C는 역사연구에 있어서 사실과 역사는 모두 필요한 요소로 어느 한 쪽을 더 강조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C는 “역사는 사실의 노예도 아니고 강압적인 주인도 아니다.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은 평등한 관계에 있다. 역사는 그의 해석에 맞추어 사실을 연구하고, 그의 사실에 맞추어 해석을 하는 끊임없는 과정에 몰두한다.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과의 상호작용의 부단한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장에 계속)

(나) 우리가 역사를 알려는 이유는 선택한 사실(史實)*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서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 흐르는 법칙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 사실(史實)을 해석하는 데는 역사적 사실(事實)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적 사실을 선택할 때의 현재적 요구도 중요하다. 한글이 창제된 일은 사실(史實)이지만, 한글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조선 시대에는 어리석은 백성을 가엾게 여기는 것에 한정되었지만, 일제 강점기에는 한글을 연구하고 사용하는 것이 독립운동의 일환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사실(史實) : 역사에 실제로 일어난 사실(事實).

(다) 영화 『라쇼몽(羅生門)』에서 등장인물들은 모두 자기 입장에서 하나의 살인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 사실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해석이 다른 경우가 많다. 독일의 인지생물학자 야코프 폰 위스켈(Jakob von Uexküll)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스스로 임의의 가상세계를 구성하여 산다고 주장했다. 세상에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파악되는 객관적 세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대신, 각 생물체가 구성하는 다양한 가상세계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역사적 서술들은 이를 구성하는 자의 것이다. 역사적 서술은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말이다. 역사서술이 주관적인 구성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주장이다. 나는 무슨 이유로 우리가 역사책에 기록된 사건을 사실로 인식하는지가 더욱 궁금하다.

(라) 인간은 역사학이 과거를 심판하고 미래에 도움이 되기를 열망하여 왔다. 그러나 나의 역사서술은 그러한 허황된 바람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들이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를 알려 할 뿐이다. 아무리 보기 싫고 추한 사실이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일이 역사서술의 가장 훌륭한 원리임을 알아야 한다. 역사의 효능은 관련된 정보의 풍부함보다도 확실성에 있는 것이다. 역사서술에는 인간의 사심 없는 판단이 필요하다.

(마)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방법은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으로 나뉜다. 양적 방법론은 사회·문화 현상도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다고 본다. 계량화나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양적 방법론의 궁극적 목적이다. 반면, 질적 방법론은 사회·문화 현상이 자연 현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문화 현상에서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와 의미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질적 방법론에서는 사회적 맥락과 연구자의 경험이나 지식, 가치 등이 사회·문화 현상을 해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2-1. 제시문 (나), (다), (라)의 핵심 요지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역사가자가 누구인지, 제시문 (가)에서 각각 찾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50자±20자) [15점]

2-2. 제시문 (다)와 (라)는 제시문 (마)의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 중 어느 것과 각각 상응하는지 찾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50자±20자) [15점]

【문항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2010년 12월 중동 출신 난민 100여 명을 태운 어선이 호주의 크리스마스 섬 절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서 70명이 넘는 난민이 익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서너 살 된 아이들이 부서진 배의 파편을 붙잡고 울부짖었으나 출동한 호주 구조대는 이 상황을 보고도 구명조끼만 던져 주었을 뿐 구조에 불성실했다.

(뒷면에 계속)

크리스마스 섬은 ‘난민들의 무덤’으로 악명을 떨쳐 왔다. 호주 정부가 이 섬에 수용소를 세워 난민들을 몰아넣기로 한 것은 2001년 9·11테러 직후였다. 당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존 하워드 호주 총리는 미군의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버금가는 시설을 호주에도 만들자고 밀약했다. 2003년 호주 정부는 대규모 난민선 입항을 금지하는 이민 정책을 내놓고 난민들이 밀입국하는 길목에 자리한 이 섬에 난민 수용소를 설치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이 수용소가 인종차별주의와 반테러리즘, 이슬람 혐오증 등의 복합품이라고 진단했다. 인권단체들은 이 수용소를 교도소로 규정하고, 과거 원주민들을 분리 수용하면서 박해하던 백호주의의 잔재라고 비난하고 있다.

(나) 2006년 봄, 캘리포니아의 여러 도시에서 불법체류자들이 거리 시위를 벌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시위는 특히 극적이었지요. 이때 사람들은 멕시코 국가(國歌)뿐만 아니라 미국 국가(國歌)를 스페인어로 노래했습니다. ‘*nuestro hymn*(우리의 국가)’라는 스페인어로 된 미국 국가의 출현은 국민의 복수성, 즉 ‘우리’와 ‘우리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국가는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가? 누구의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미국 국가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소유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이 ‘우리’에 누가 포함되는가 하는 소속 방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스페인어로 노래하고 스페인어를 통해 주장되는 바로 이 ‘우리’는 국민과 평등에 대한 우리의 사고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하는 행위가 복수(複數)의 행동이었고, 복수성의 표현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주장했듯이, 만약 미국 국가를 오직 영어로만 불러야 한다면, 국민은 분명히 언어적 다수집단으로 한정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누가 국민에 속하고 속하지 않는가를 통제하는 기준이 되겠지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말로 하자면, 이는 국민적 다수집단이 국민을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정의하고, 누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배제의 규범을 설정하거나 통제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존의 국민이라는 관념 속으로 포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평등의 문제입니다. 만약 평등이 없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저는 재일조선인 문학자입니다. 조선인이지만 조선어로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지는 못하지요. 재일조선인 문학자의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일본어를 모어(母語)로 배웠고, 독자 대다수가 일본어를 국어(國語)로 사용하는 일본인입니다. ‘조선인인 내가 왜 일본어를 모어로 삼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재일조선인은 자신의 모어가 일본어라는 것에 서먹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디아스포라(diaspora)*를 포함한 난민들 대부분이 공유하는 언어 경험일 것입니다. 즉 난민은 국민과 단지 언어를 달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언어 경험이 다르고 그 때문에 언어관을 달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쟁·학살·난민의 시대였던 20세기를 거치면서 인류 전체의 언어 경험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닫힌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그 공동의 성원만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정서를 자명한 전제로 해서 언어가 교환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정서가 공유되지 못해 서먹하고 어색하며 불안에 찬 언어 교환의 시대, 무얼 말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말을 다 쏟아 부어 설명하려 하면 할수록 알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피할 수 없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는 근대 국민국가가 하나의 언어에 국어의 지위를 부여한 결과 그 틀 밖으로 쫓겨났던 사람들, 단일한 국민적 정체성을 지닐 수 없었던 저와 같은 재일조선인들의 언어 경험이자, 전 지구화 시대라는 21세기에 정치·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이동하는 무수한 난민들의 언어 경험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가볍게 ‘다언어 공동체’에 거주하는 행복한 이미지가 아니라, 매우 불편하고 때로는 소모적인 ㉠디스커뮤니케이션(discommunication)의 상황을 감수하면서 수행되어야 할 언어활동을 요구합니다. 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함께 감내하고 성찰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겠지요. 그러므로 대화를 할 때 삶의 바탕에 자리 잡은 서로의 이질적인 경험들, 혹은 경험의 단절이라는 것을 얼마나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타자의 언어에서 자기와 다른 낯선 것이 감지된다면 그것이 어떤 경험에 의해서 초래된 것인가, 그런 타자의 경험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열고 이해할 수 있는가, 지금은 그런 노력을 요청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디아스포라(diaspora) :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 또는 그 집단.

(다음 장에 계속)

(라) 아우구스티누스에서 헤겔에 이르는 기독교 역사철학은 그리스도의 출현을 세계사의 전환점이자 중심으로 본다. 하지만 이런 관념은 기독교 신자에게만 타당하다. 한 민족이나 세계의 특정 지역의 역사적 경험을 기초로 한 단일한 세계사라는 개념을 숨기고 있는 이런 유형의 역사철학에 맞서, 칼 야스퍼스(Karl Jaspers)는 모든 민족에게 ‘역사적 자기 이해라는 공통적 틀’을 제공하는 경험적으로 특정한 역사의 축을 발견했다. 이 세계사의 축은 기원전 5세기 내내, 그리고 기원전 8백 년에서 2백 년 사이에 다양한 곳에서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공자와 노자가, 인도에서는 우파니샤드와 부처가, 페르시아에서는 자라투스트라가, 팔레스타인에서는 예언자가, 그리스에서는 호머와 철학자, 비극 작가가 등장했다. 서로 아무런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았던 이들이 위대한 역사적 세계 문명의 기원이 되었고, 이 기원들이 각기 다른 다양성 속에서 공통성을 지녔다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인류의 새로운 통일성은 자신의 고유한 과거를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체계, 즉 기원이 서로 다른 인류가 아주 유사한 동일성을 보이는 체계를 통해 획득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동일성은 확실성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세계제국의 전체정치 하에 살면서 일종의 미화된 에스페란토어로 말하고 사고하려는 세계시민은 괴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인류의 통합과 연대의 바탕은 하나의 종교, 하나의 철학, 혹은 하나의 정치 형태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하나의 동일성을 지향하고 동일성 속에서 다양성이 은폐되는 동시에 출현하게 된다는 믿음에 있다.

(마) 오늘날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 문제, 인권 문제, 환경 문제, 빈곤 문제, 전쟁 문제 등은 국가 수준의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지구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수준의 국가와 정부를 상정하고 나의 삶이 국가뿐 아니라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세계시민적 관점이 필요하다. 세계시민주의에 따르면 세계화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인류 공동체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전 지구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전 지구적 사고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인류의 공동 이익을 생각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하여 새로운 생활양식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세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 인류를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간주한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에는 세계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도덕적 가치는 개인적 삶에서부터 사회 및 국가를 넘어 세계적 측면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인간 존엄성과 인권은 인류의 이상이자 세계가 운용되어야 하는 기초로서 기능할 궁극적인 도덕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물론 세계시민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정 공동체의 인간으로서 가지는 특수한 가치 역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정 공동체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보편적 가치와 인류에만 추구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삶을 지향하는 것 역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3-1. 제시문 (다)의 ㉠이 문맥상 의미하는 바와 대립되는 함의(含意)를 지닌 단어를 제시문 (나)와 (라)에서 각각 찾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50자±20자) [15점]

3-2. 제시문에서 밑줄 친 ‘난민’, ‘불법체류자들’, ‘디아스포라’와 같은 존재는 오늘날 국민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정치적,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문 (나), (다), (라), (마)의 핵심 단어와 표현들을 활용하여 제시하시오. (350자±20자) [25점]

* 주의사항 :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